



월동배추 수확 분주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이상 한파로 냉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11일 무안군 청계면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서두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월동배추 생산량은 27만t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평년의 37만t 보다 10만t, 작황이 나빴던 지난해의 31만t 보다 4만t 가량 적은 수치다. /무안=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R&D 특구, 대전 종속 안된다”

“기획·정책 기능 살린 독립법인으로”
市·지역상공계, 박영준 차관에 요청

한·중·일 국제협력 개방형 특구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연구개발(R&D) 특구에 기획 및 정책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에 설치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총괄관리를 맡고 그 산하에 지역본부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자칫 광주R&D특구의 차별화와 국제화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11일 광주테크노파크를 방문한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에 대해 광주R&D특구가 자체적인 사업

개발과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독립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북구)도 이달 내 기존 대덕특구 뿐 아니라 광주와 대구 R&D특구에도 별도의 지원본부를 설립해 특화된 기술사업화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안에서는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광주·대구 특구가 모든 사업과 정책을 보고한 뒤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로 돼 있다”며 “특히 사업평가와 그에 따른 지원도 진흥재단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신생 특구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광주시의 요구에 박 차관은 “대덕특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대전 대덕의 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가 지난 10일 광주 기술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가운데)이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호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에서 지역 주요현인과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사업화센터에 근무할 인원을 선발하는 등 정부안에 따른 인력·조직 구축에 나서고 있어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이 서둘러 광주R&D특구 독립법안화 등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 광주R&D특구지원단을 구성, 국제협력단지 준비 및 행정적 지원업무 시작할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에 특구 운영 기조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조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 R&D특구는 국토의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특구로 기획과 정책기능을 쥐어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기술사업화만을 고민해서는 세계적 인 특구로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강운대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일본과 중국을 방문, 한·중·일 국제협력 개방형 특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11일 오후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참석한 지식경제부 지역사업설명회에서 지역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동북아상품거래소 조속한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원 ▲광주테크노파크 2단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당 순천 보선 후보 낼까... 말까...

민주당이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주당이 강력히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조차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1야당이 그것도 ‘안방’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정치에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당 후보에 양보를 한다고 해서 승리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반발도 일고 있다.

보로 민주당 후보가 순천에서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무(無)공천에 반발,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민주당 인사를 누르고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순천지역의 일반적인 정서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 의원들 “총선 위해 ‘통큰 양보’를
호남출신 의원들 “양보한다고 승리하냐”

순천의 무공천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야권연대가 필수적 지역인 수도권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순화구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맞물려 있는 이번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승리’와 ‘야권연대의 성공’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수로 순천 양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순천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잃더라도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초석이 될 수 있고 비록, 민주당 후보가 아닌 연대후보가 패배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호남지역 야권연대 협상 과정에서 대표적 사례로 활용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희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10일 당 연대·연합특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순천 양보론’이 나오면서 이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특위에서 임종석 전 의원은 “순천을 양보해야 우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대에서 주도권을 쥌 수 있다”고 말했고, 전남지역 의원인 이낙연 사무총장은 “무조건 양보론은 순천 시민과 호남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이 이번엔 기득권을 버리고 통크게 가야 한다는 데는 상당수 특위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순천 양보론에 대한 반발은 주로 호남출신 지도부와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대’란 것이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자는 차원인데 기계적으로 양보를 한다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의 양

보로 민주당 후보가 순천에서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무(無)공천에 반발,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는 민주당 인사를 누르고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이 순천지역의 일반적인 정서로 알려져 있다. 또 오랫동안 순천지역을 위해, 순천지역을 바라보며 활동해온 민주당 인사들은 물론 당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 그렇지 않아도 무소속 지자체장이 즐비한 전남 동부권에서 민주당 세력이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순천 양보론의 결실들이 되고 있다.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민노당 등 다른 야당에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순천이 해결돼도 다른 지역의 공천문제가 점점 산중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읍은 친노(親盧)그룹 내의 교통정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분당읍은 ‘인물난’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재보선 승리의 가능성이 될 강원도지사 선거의 경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를 내세우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3일 심야 최고위원을 갖고 재보선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2012 한상대회 공동유치”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2년 세계한상대회를 공동유치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는 11일 “2012년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검토해온 전남도와 협의한 결과,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자치단체는 이달 중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

회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유력하고, 광주·전남의 기존 인프라를 통해 개최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양 시·도의 복안이다.

세계한상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700만 제의 동포와 국내기업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축, 한민족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경제인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과 지방자치

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개최되고 있다. 40여개국 1500여명의 세계 한상은 물론 국내기업인 등 35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비즈니스 이벤트다. 광주시는 “세계한상대회를 유치하면 한상 자본의 투자 유치 및 지역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되고 시도가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한상대회 개최지는 오는 4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윤현석기자 chadol@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중학교 배정 말씀 ▶ 3면 어린이 예·적금 상품 ▶ 4면 푸른길 공원 탐방 ▶ 5면 Books ▶ 8·9면 이통사 ‘SNS 쟁탈전’ ▶ 12면 해외파 주말 출격 ▶ 14면

MUSEO 뮤제오

광주를 리더하는 특별한 분을 위한 약속-

이태리의 정통 명품 수입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쁨있는 실내를 연출하십시오!

신세계백화점 금호점 뮤제오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샵부서

뮤제오

메리어트 웨딩홀 동성역 동성교차로 상록회관

KB 국민은행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이태리 명품브랜드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 취급사 /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

MUSEO 뮤제오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샵부서

뮤제오

메리어트 웨딩홀 동성역 동성교차로 상록회관

KB 국민은행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이태리 명품브랜드 점보 / 프로바지 / 란자니 / 메데아 / 실바노 / 취급사 / 데포카 / 체피 / 라콘테시나 / 오리지날레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